



numbers
EXCLUSIVE vol. 273

목회자의 노후 준비

목회자 3명 중 2명, 은퇴 후 살 집조차 없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출산율 등)
- ② 한국인의 종교 인식(종교별 이미지, 성직자 사회 참여)

2025. 2. 4.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목회자 3명 중 2명, 은퇴 후 살 집조차 없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2025년에는 다수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목회자가 은퇴를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소형교회 비중이 큰 한국교회 특성상 목사라는 직업은 노후 준비가 안 되거나 부족한 것이 실상이다.

이에 따라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전국의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8월, '목회자의 노후 준비 실태와 인식'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교회와 교단이 목회자의 노후에 어떤 준비를 하고, 목회자 개인적으로도 노후 준비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데 이 조사의 목적이 있다.

주요 결과를 보면 현재 시무 중인 목회자 3명 중 2명 정도인 65%가 노후 준비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목회자의 64%는 은퇴 후 마땅한 거주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에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노후 준비 실태와 인식 조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의 담임목사, 부목사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표본 규모	총 500명(유효표본) (담임목사: 250명, 부목사: 250명)
표본 추출	유의할당추출(Quota Sampling)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담임목사의 경우 교회규모별 가중치 적용)
조사 기간	2024년 8월 20일 ~ 8월 23일(4일간)
조사 의뢰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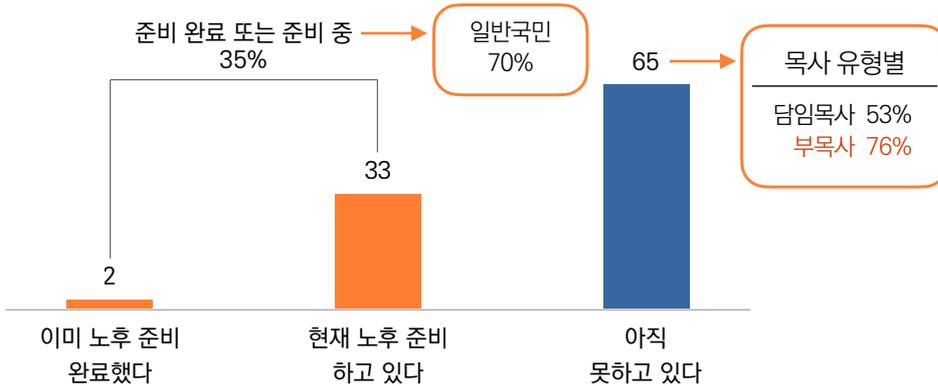
Note) 편의추출 및 할당추출은 비확률 표집 방법으로 표본오차를 구할 수 없다.

01

[은퇴 전 경제적 준비] 노후 준비율, 일반국민 70%인데 반해 목회자는 35%!

- 은퇴 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에 관해 목회자 3명 중 1명 정도(35%)만이 '이미 완료'(2%)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다'(33%)고 응답했다. 반면 '아직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목회자 3명 중 2명꼴(65%)이었고, 부목사(76%)가 담임목사(53%)보다 크게 높았다.
- 목회자와 일반국민(만 19세 이상)*을 비교했을 때, 노후 준비율(완료+준비 중)은 일반국민이 70%로 목회자 그룹(35%) 대비 월등히 높았다. 그만큼 목회자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그림] 은퇴 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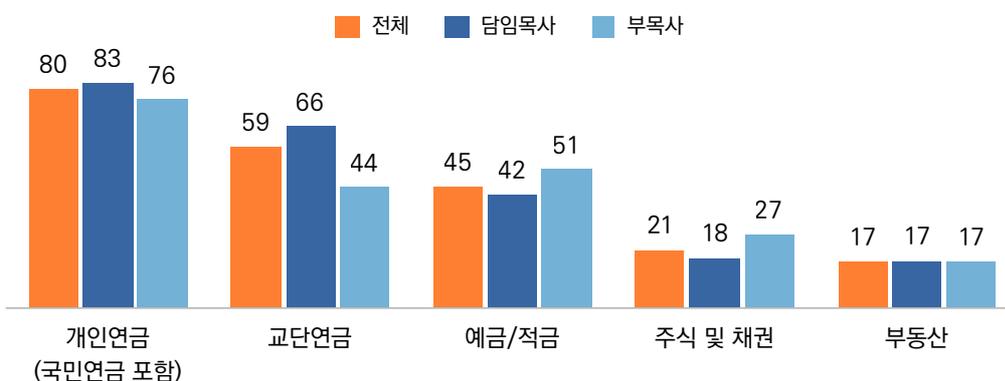


*일반국민 :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사회조사 결과, 2023.11.08. (만 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은퇴 후 경제적 준비 방법, 개인연금(80%), 교단연금(59%) 순!

- 은퇴 후 경제적 준비 방법으로는 '개인연금'이 8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교단연금' 59%, '예금/적금' 45% 순이었다.
- 담임목사의 경우 '교단연금', 부목사는 '예금/적금'과 '주식 및 채권'으로 준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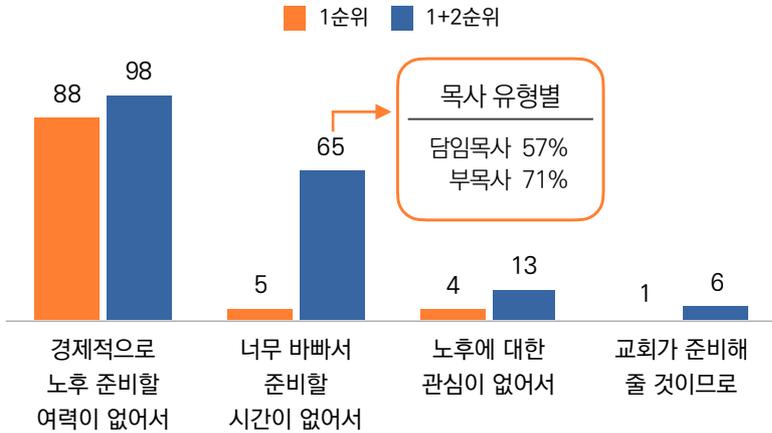
[그림] 은퇴 후 경제적 준비 방법 (노후 준비 완료자 또는 현재 노후 준비 중인 자, 상위 5위, 중복응답, %)



노후 준비 못한 목회자,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할 여력 없다'!

-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목회자 대다수(88%)는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할 여력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 '너무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1+2순위 기준)은 부목사가 71%로 담임목사 57%보다 크게 높았다.

[그림] 은퇴 후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 (노후 준비 못 하고 있는 자,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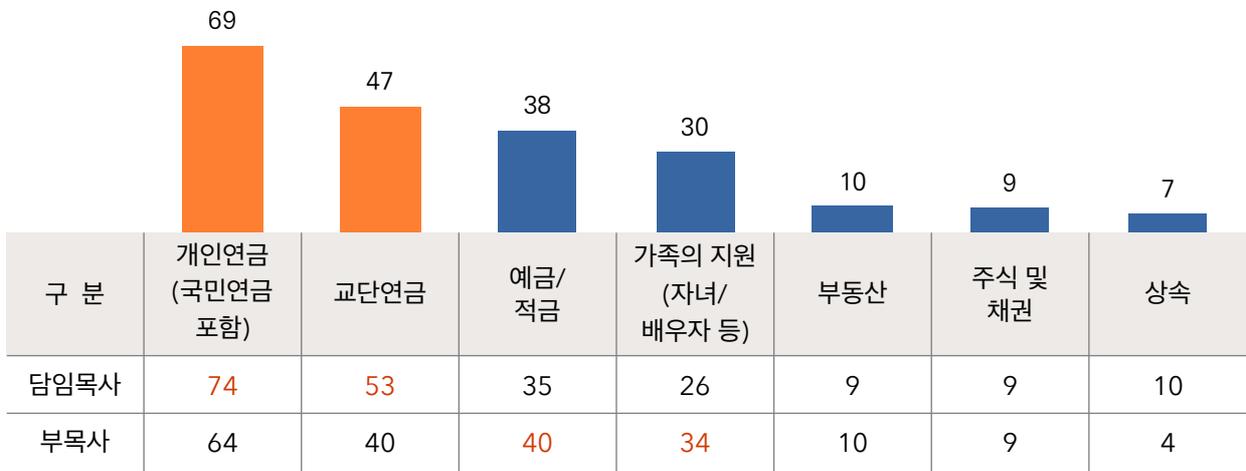
02

[은퇴 후 경제적 예상]

은퇴 후 경제적 소득 경로 예상, 교단연금보다 개인/국민연금!

- 은퇴 후 경제적 소득 예상으로는 '개인연금(국민연금 포함)'이 6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단연금' 47%, '예금/적금' 38%, '가족의 지원' 30% 순이었다.
- 목회자 유형별로 보면 담임목사는 '개인연금(국민연금 포함)'과 '교단연금' 비율이, 부목사는 '예금/적금'과 '가족의 지원'을 은퇴 후 소득으로 예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담임목사는 부목사에 비해 노후에 '연금'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 경로를 갖춘 비율이 높은 셈이다. 반면 부목사는 담임목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예/적금을 붓거나, 가족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알 수 있다.

[그림] 은퇴 후 경제적 소득 경로 예상 (목회자, 중복응답,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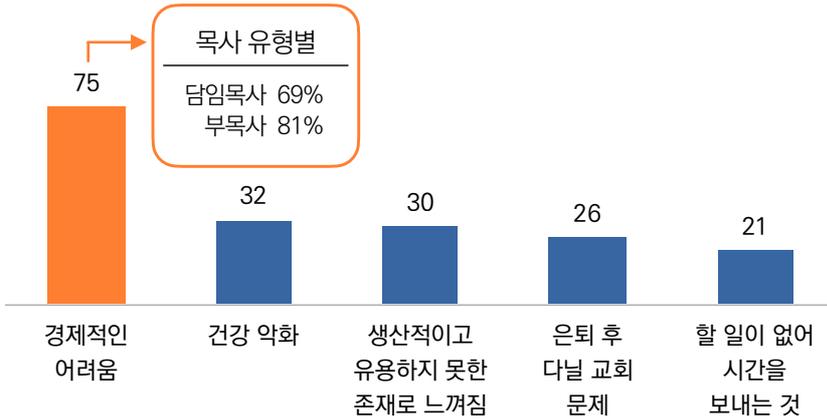


구분	개인연금 (국민연금 포함)	교단연금	예금/적금	가족의 지원 (자녀/배우자 등)	부동산	주식 및 채권	상속
담임목사	74	53	35	26	9	9	10
부목사	64	40	40	34	10	9	4

목회 은퇴 후 예상되는 어려움, '경제적 문제' 압도적

- 목회 은퇴 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1+2순위) 목회자 4명 중 3명인 75%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압도적으로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는 '건강 악화'(32%), '생산적이고 유용하지 못한 존재로 느껴짐'(30%), '은퇴 후 다닐 교회 문제'(26%) 등의 순이었다.
- '경제적인 어려움'을 선택한 경우, 앞선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아직 못하고 있다' 비율(부목사 76%, 담임목사 53%)과 마찬가지로 담임목사(69%)보다 부목사(81%)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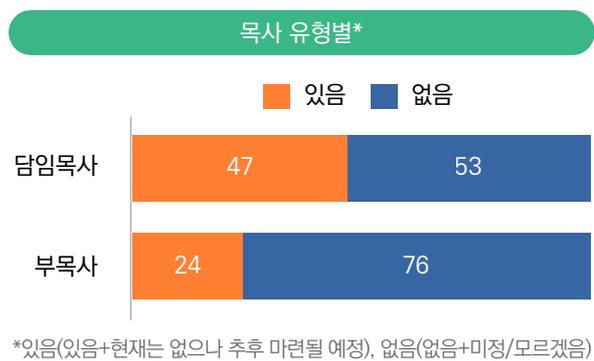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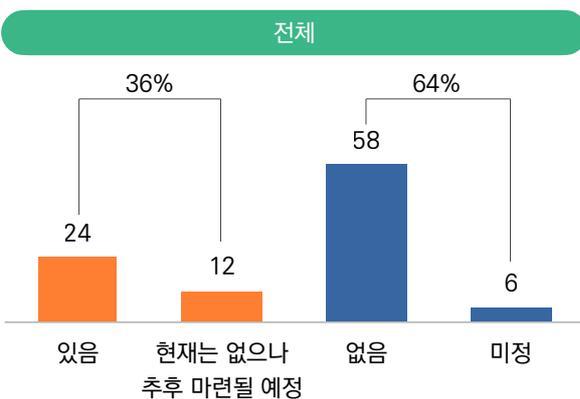
[그림] 은퇴 후 예상하는 어려움 (목회자, 1+2순위, 상위 5위, %)



목회자 3명 중 2명, 은퇴 후 살 집조차 없다!

- 목회 은퇴 후 주거할 자가 소유 주택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목회자 3명 중 1명(36%)은 '있음'(24%) 혹은 '현재는 없으나 추후 마련될 예정'(12%)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 중 2명(64%)은 은퇴 후 주거지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 노후에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었다.
- 자가 주택 보유 비율('추후 마련될 예정' 포함)은 담임목사(47%)가 부목사(24%)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림] 은퇴 후 주거할 자가 소유 주택 여부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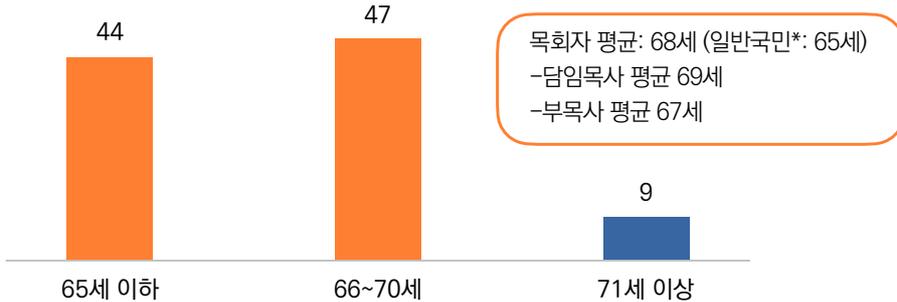


03

[노후 준비를 위한 인식] 목회자 희망 은퇴 나이, 전체 평균 68세!

- 소속 교단의 정년과 상관없이 희망 은퇴 나이를 물어본 결과, '66~70세'로 응답한 비율이 47%로 절반 가까이에 해당했고, '65세 이하'로 응답한 비율도 44%였다. 반면 '71세 이상'은 9%에 불과했다.
- 목회자의 희망 은퇴 나이는 전체 평균 68세였는데,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각각 69세, 67세로 2세가량 차이를 보였다. 주요 교단의 목회자 은퇴연령이 70세라 할 때 정년보다는 2년 정도 앞당겨 은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목회자의 희망 은퇴 나이는 일반국민 평균(65세)보다 다소 높았다.

[그림] 희망 은퇴 나이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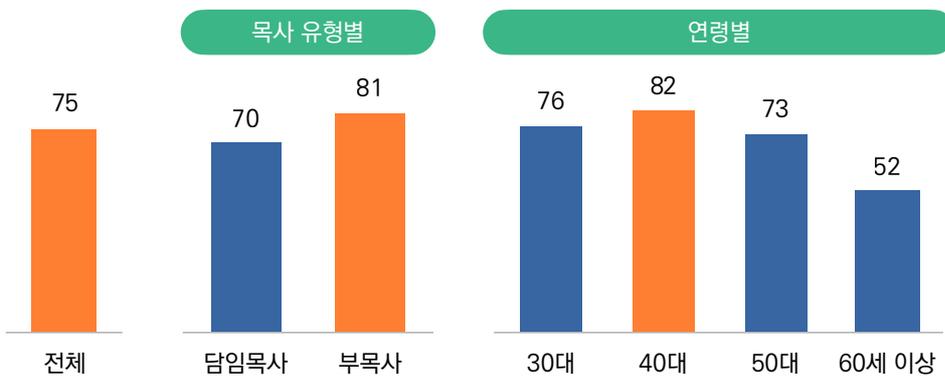


*일반국민 : KB금융그룹, 노후 준비 진단과 거주지 선택 조건, 2023.11. (비은퇴자 대상)

부목사가 담임목사보다 자신의 미래 더 걱정

- 목회자의 75%인 4명 중 3명 정도는 '자신의 노후문제에 대해 걱정된다'고 응답했고, '담임목사'(70%)보다는 '부목사'(81%)의 노후문제 걱정 비율이 10%p 이상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8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노후문제에 관한 염려 정도 (목회자, '매우+약간 걱정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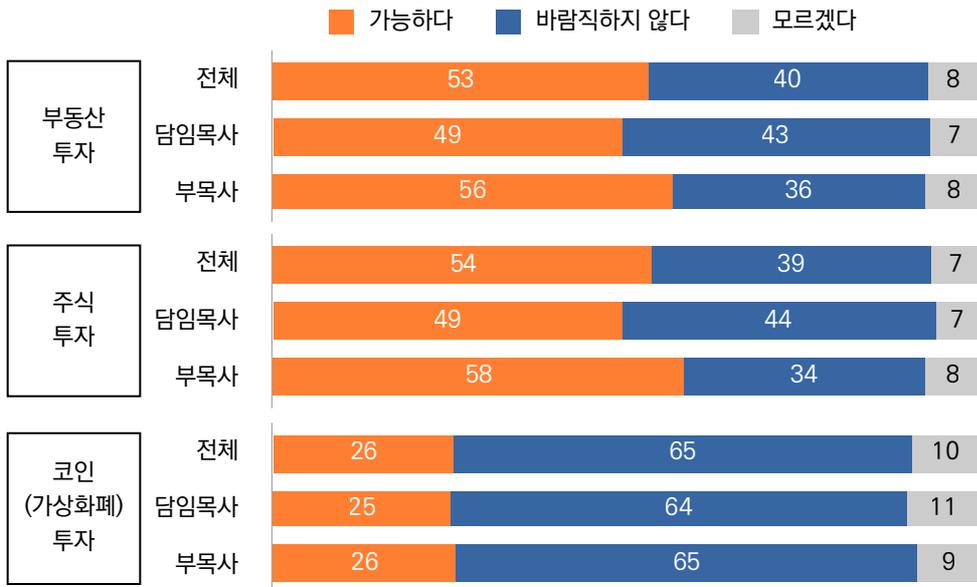


*4점 척도

목회자 절반 이상, 노후 준비 위해 ‘부동산·주식 투자’ 가능성 열어둬!

- 부동산, 주식, 코인 등 투자 수단을 제시하고, 노후 준비를 위해 해당 항목에 투자하는 것에 관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부동산 투자’(53%)와 ‘주식 투자’(54%)에는 목회자 절반 이상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코인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가 65%로 ‘가능하다’(26%) 비율의 2배 이상이었다. 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주식 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부동산/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비율은 담임목사 대비 부목사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목회자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에 관한 인식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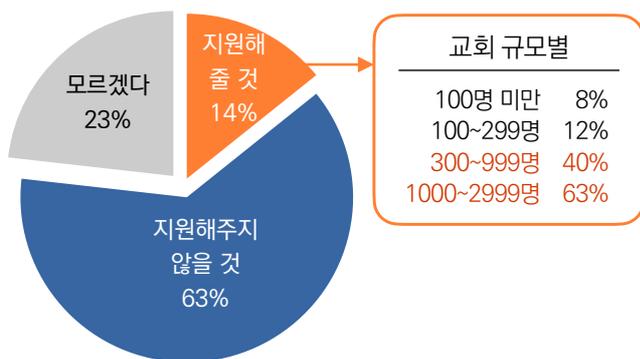


04

[노후를 위한 교회의 지원] 담임목사 63%, 은퇴 후 교회의 경제적 지원, 비관적!

- 은퇴 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조건을 교회가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담임목사의 63%는 ‘지원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지원해 줄 것’이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 ‘지원해 줄 것’이란 응답 비율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노후준비에 있어서도 교회 규모에 따른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은퇴 후 노후를 위한 교회의 경제적 지원 예상 (담임목사)



목회자 10명 중 7명, 원로목사제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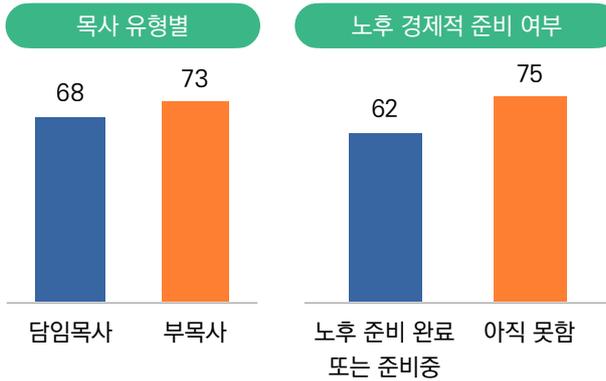
- 원로목사제도는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은퇴한 목사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원로목사제도에 대해 목회자 10명 중 7명(70%)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 원로목사제도의 경우 ‘담임목사’(68%)보다는 ‘부목사’(73%)의 필요성 인식이 다소 높았으며, 노후 준비를 아직 못한 집단(7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원로목사제도의 필요성 인식* (목회자)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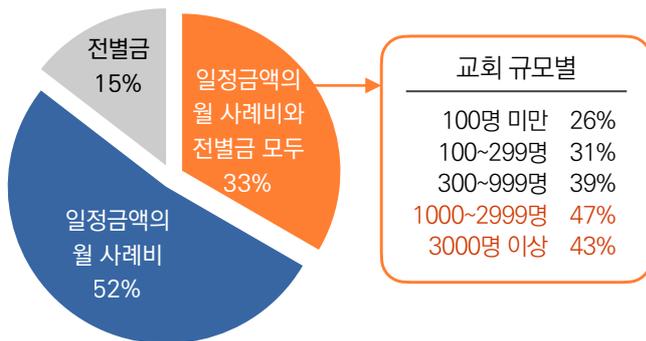
[그림] 응답자 특성별 원로목사제도의 필요성 인식 (매우+어느정도 필요하다 비율*, %)



원로목사의 경제적 지원, 전별금 없어도 월 사례비는 지원해 달라!

- 원로목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들에게 원로목사의 경제적 지원 범위에 관해 물었다. ‘일정금액의 월 사례비’가 절반(52%)으로 가장 많았고, ‘일정금액의 월 사례비와 전별금 모두’ 33%, ‘전별금’ 15%였다.
- ‘일정금액의 월 사례비와 전별금 모두’를 원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교회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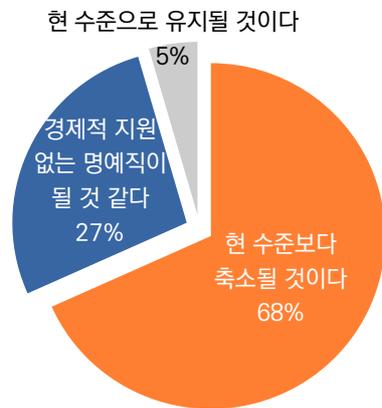
[그림] 원로목사의 경제적 지원 범위 (원로목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



10년 후 원로목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 '축소 혹은 중단' 관측이 지배적!

- 10년 후 한국교회 원로목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었다. 그 결과,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는 5%에 불과했고, '현 수준보다 축소될 것' 68%, '경제적 지원이 없는 명예직이 될 것' 27%로 현재보다 원로목사에 대한 대우가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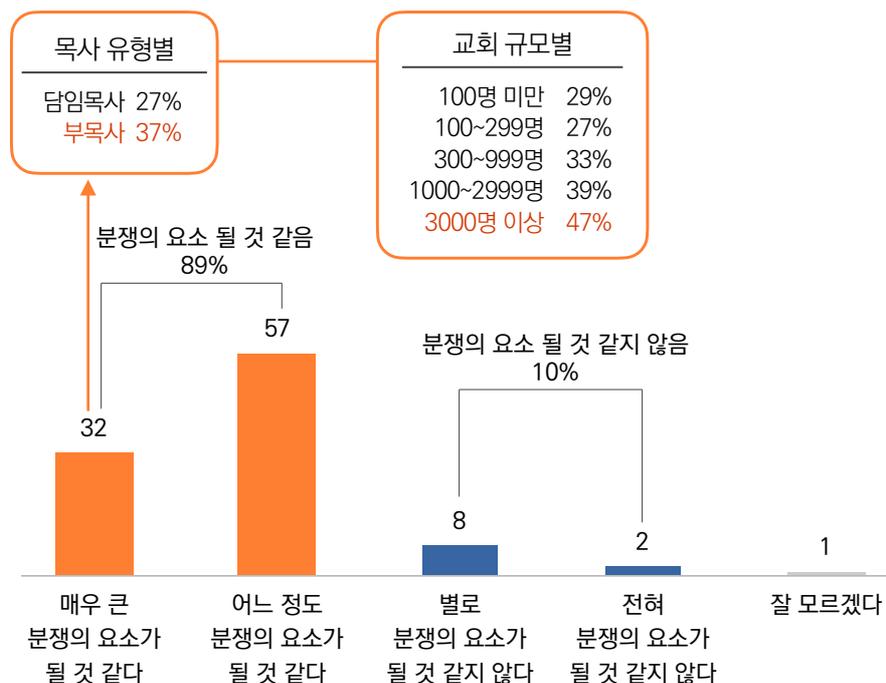
[그림] 10년 후 한국교회의 원로목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 예상 (목회자)



대다수 목회자, 은퇴 목회자 경제적 지원 문제가 한국교회 분쟁 요소될까 우려

- 은퇴 목회자의 경제적 지원 문제가 향후 한국교회의 분쟁 요소가 될 것인가? 목회자의 대다수(89%)가 '분쟁 요소가 될 것 같다'고 응답했고, 그중 '매우 큰 분쟁의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의견도 32%나 되었다.
- '매우 큰 분쟁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인식은 담임목사(27%)보다는 부목사(37%)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체로 교회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 교인 수 '3000명 이상'인 경우 절반 가까이(47%)에 달했다.

[그림] 은퇴 목회자 경제적 지원 문제의 한국교회 분쟁 요소 인식 (목회자, %)



이번호 요약

1. 노후 준비율, 일반국민 70%인데 반해 목회자 35%에 그쳐!

- 목회자의 은퇴 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상태를 일반국민과 비교했을 때, 일반국민은 노후준비율(완료+준비 중)이 70%인데 반해 목회자는 35%에 그쳤다.

2. 목회자 3명 중 2명, 은퇴 후 살 집조차 없다!

- 목회 은퇴 후 주거할 자가 소유 주택에 관해서는 목회자 3명 중 2명(64%)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응답해 노후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2. 원로목사의 경제적 지원, 전별금 없더라도 월 사례비는 지원해달라!

- 원로목사제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원로목사의 경제적 지원 범위는 '일정금액의 월 사례비'가 절반(52%)으로 가장 많았고, '월 사례비+전별금 모두' 33%, '전별금' 15%였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칼럼] 목회자의 은퇴에 대한 한 단상(斷想) (이승구 교수, 행복연구원)

관련 성경 구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18)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 목회자 중 상당수가 은퇴 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부목사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즘 젊은 세대 성도들은 목회자 노후를 왜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목회자의 노후는 목회자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이다. 게다가 교회 교세는 약화하고 있어 점차 교회 재정도 목회자 은퇴 후를 책임질 만큼 충분하지도 않다. 목회자가 더이상 성도나 교회에 기대할 수만은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제 목회자도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목회자 홀로 노후를 다 감당해야 하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교회를 헌신공동체로 바라본다면 성도들은 목회자가 노후 걱정 없이 현재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교회는 일반 직장과는 다르다. 평생 목회에 전 삶을 바친 목사가 은퇴 후 머물 공간이 없어 전전긍긍한다면 이는 교회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목회자의 노후 준비는 현실적으로 목회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목회자 개인, 교회, 교단이 함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목회자들의 재정 관리 교육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은퇴 이전, 목회 초기부터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소형교회는 어렵겠지만 중대형 교회는 최소 은퇴 10년 전부터라도 교회에서 개인연금 등을 지원해서 목회자의 은퇴 준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 기독교언론, 교단, 노회 등이 협력,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목회자 은퇴 준비 분위기를 한국교회에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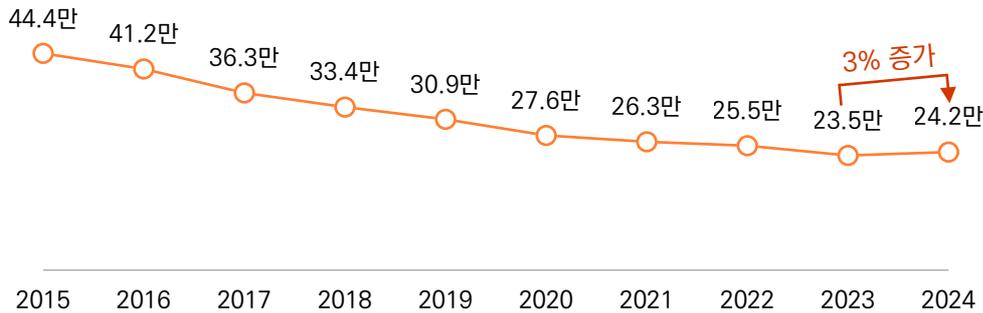
1.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출산율 등)
2. 한국인의 종교 인식
(종교별 이미지, 성직자 사회 참여)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출산율 등)] 한국의 출생아 수, 9년 만에 반등!

-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하는 국가·사회적인 큰 고민거리이다. 조금은 위안이 될만한 행정안전부의 국가통계 결과(2024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 결과)가 최근 발표되어 이를 살펴본다.
-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추이를 보면 2015년 44만 4천 명 이후 8년간 감소하기만 했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2024년) 24만 2천 명으로 2023년보다 7천 명가량(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등이 저출생 대책을 쏟아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며, '아이를 낳으면 손해'라는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림] 출생아 수 추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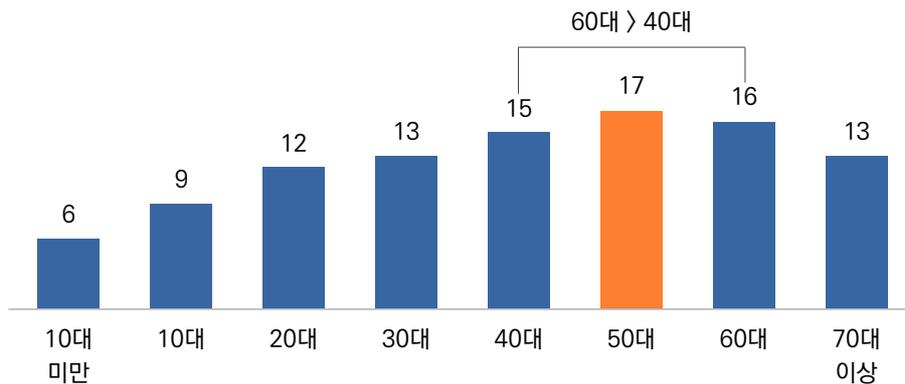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년 출생(등록)자 수 24만 명, 9년 만에 증가, 2025.01.03.

* 조선일보, MZ인식 바뀌자, 9년 만에 출생아 수 늘었다, 2025.01.06.(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1/04/OV7TYZMFXNBGDHNSC34AWXUKU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60대 인구, 40대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러!

- 연령대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비중은 50대가 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16%), 40대(15%) 등의 순이었다.
- 60대 인구가 40대 인구를, 70대 이상 인구가 30대 인구를 처음으로 넘어선 결과라 주목된다.

[그림] 연령대별 주민등록 인구 비중* (%)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년 출생(등록)자 수 24만 명, 9년 만에 증가, 2025.01.03.

*30대(12.93%), 70대 이상(12.94%)가 본 수치임



[한국인의 종교 인식(종교별 이미지, 성직자 사회 참여) 비기독교인의 기독교 이미지, '사이비/종교/목사/전도/이기적!'

- 우리 국민들이 각 종교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2024 종교인식조사 결과(한국리서치)를 통해 살펴본다. (워드클라우드 형식의 이미지 비교 분석)
- 먼저 기독교의 경우, '기독교인'은 사랑, 믿음, 하나님, 구원 등을 떠올린 반면, '비기독교인'은 종교, 목사, 전도 외에도 사이비, 이기적 등 부정적 응답도 눈에 띈다.
- 불교의 경우, '불교인'은 자비, 마음, 종교, 절을, '비불교인'은 스님, 절, 느낌 등이 떠오른다고 응답했다.
- 천주교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로 '천주교인'은 마리아, 성모, 신부, 평화를 많이 떠올렸고, '비천주교인'은 마리아, 성모, 성당, 신부 등의 단어를 언급했다.
- 불교나 천주교에서 비신자들은 비교적 중립적인 단어를 많이 떠올렸는데 반해 기독교는 비신자들이 연상한 단어가 부정적 특성을 담은 것이 유독 많이 보인 점이 주목된다.

[그림] 종교별 연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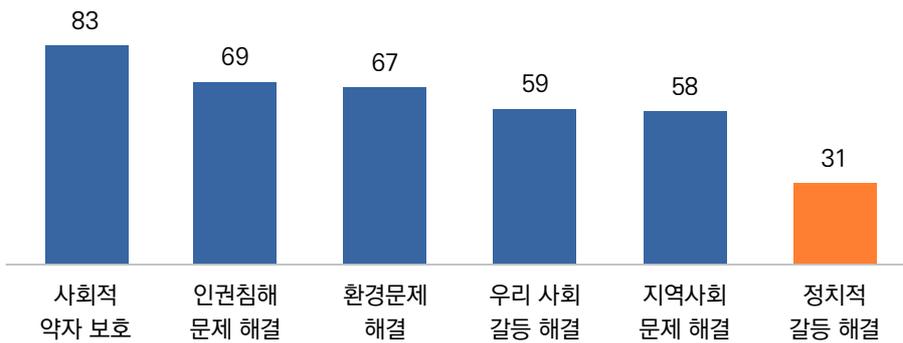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종교인식조사: 주요 종교 호감도와 종교의 영향력, 2024.12.18.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11.22.~11.25.)

Note) 각 그룹별로 최소 2회 이상 언급된 단어를 워드클라우드 형식으로 제시

일반국민, 성직자의 사회 참여 역할 중 '정치적 갈등 해결' 31%만 동의해

- 이번에는 성직자·종교 지도자의 사회 참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본다. 성직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요구한 사회 참여 분야는 '사회적 약자 보호'(83%)로 국민 대부분이 동의했다. 다음으로 '인권침해 문제 해결'(69%), '환경문제 해결'(67%)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도 3명 중 2명 이상이 응답했고, '우리 사회 갈등 해결'(59%), '지역사회 문제 해결 참여'(58%)에 대한 동의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 다만 '정치적 갈등 해결'에는 31%만 동의해 정치 영역에 종교가 개입하는 것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비동의율 60%)이 훨씬 강했다. 다양한 사회 이슈와 갈등 해결을 위해 성직자·종교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지만, 종교계의 정치 참여만큼은 제한되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림] 성직자·종교 지도자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일반국민, '전적으로 동의+동의하는 편'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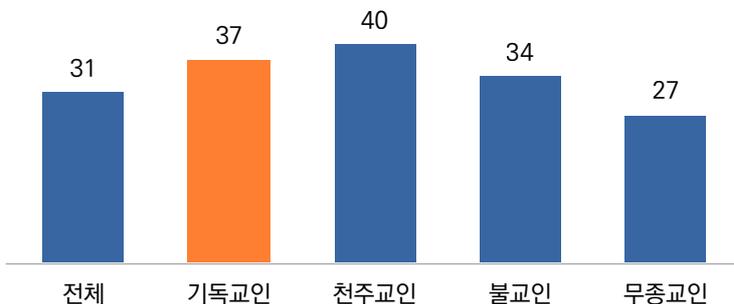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종교인식 조사, 종교 진리와 가치에 대한 인식, 종교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 2025.01.15.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11.22.~11.25.)

*4점 척도

성직자의 정치적 갈등 해결 참여, 기독교인 37%만 찬성!

- 성직자가 정치적 갈등 해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율을 종교인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31%의 낮은 결과를 보였다.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이 각각 37%, 40%로 전체 동의율(31%)보다 다소 높았으나 절반을 넘지 못했고, 불교인도 3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종교인들 역시 정치 갈등 해결에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미온적·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림] 종교인별 성직자·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갈등 해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율(일반국민, '전적으로 동의+동의하는 편' 비율*,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종교인식 조사, 종교 진리와 가치에 대한 인식, 종교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 2025.01.15.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11.22.~11.25.)

*4점 척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10호 \(2025년 1월 4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찬반, 부동산 집값, 집 소유 인식 등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40호 \(2025년 1월 4주\)](#)

- 탄핵에 대한 의견, 차기 대통령 적합도, 대선후보 호감도, 부동산 정책 평가 등

[정권교체 50%·재창출 39~44%...이재명 35~36%·김문수 14~17%\[방송3사 조사\]](#)

연합뉴스_2025.1.30.

[요동치는 여야 지지율... 중도층이 움직인다](#)

국민일보_2025.2.1.

사회 일반

[젊은 여성 판매원 부를 때...20대 '여기요', 60대 '아가씨' 선호](#)

연합뉴스_2025.1.15.

[출산을 바닥 쳤나... 작년 11월 출생아 14년 만에 최대](#)

국민일보_2025.1.23.

[자식이 해선 안될 말 "치매야?"...부모가 해선 안될 말 1위는](#)

중앙일보_2025.1.28.

[반려동물 양육비 월 14.2만원...“유기동물 입양할 것” 81%](#)

중앙일보_2025.1.22.

[쪽방촌 밥 한끼의 무게는...“외로움을 극복하는 힘”](#)

동아일보_2025.1.17.

[2025 새해 계획 및 운세 서비스 이용 관련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5.1.23.

["이산가족 76%. 북한 가족 생사도 몰라"](#)

연합뉴스_2025.1.24.

청년 · 청소년

[여학생 84% "데이트비는 절반씩"...남학생 46%는 "남자가 더"](#)

연합뉴스_2025.1.23.

노인

[노인들, 왜 돈 안 쓰고 묵힌 채 세상 떠날까](#)

동아일보_2025.1.18.

[“빛이 노인 짓누른다”... 60대 이상 채무조정 4년새 83% 증가](#)

매일경제_2025.1.26.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 연속 악화'...男보다 女가 더 심각](#)

연합뉴스_2025.2.3.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노년기 1주일 150분 이상 신체활동 하면 사망 위험 31% 감소"](#)

연합뉴스_2025.1.27.

경제 · 기업

[작년 韓경제 성장을 2% 턱걸이...계엄충격 등에 4분기 0.1% 그쳐](#)

연합뉴스_2025.1.23.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올해 경영 사정, 더 어려워질 것"](#)

동아일보_2025.1.22.

[작년 한국 1인당 GDP 3만6천24달러 추산...일본·대만보다 높아](#)

연합뉴스_2025.2.2.

["부동산 불패는 끝났다, 노후 이것 해야 진짜 인생 산다"](#)

조선일보_2025.1.31.

["숯대리, 아파트 자가야?" 직장인들 이런 질문 들으면 질색](#)

조선일보_2025.1.25.

국제 · 환경

['복권 당첨돼도 일한다'는 덴마크 직장인들... "비결은 신뢰 문화"](#)

연합뉴스_2025.1.16.

건강

[부모 이혼, 자녀에 엄청난 스트레스... 뇌졸중 위험 61% '쑥'](#)

동아일보_2025.1.23.

기독교 · 종교

[올 한국교회 최우선 선결과제 물으니 "양극화" 17% 1위... "영성회복" 16% 2위](#)

국민일보_2025.1.31.

[우리 안의 샤머니즘], 국민일보

[〈상〉"무속인 시절 손님 40%가 기독교인... 사모·권사도 찾아와" _2025.1.20.](#)

[〈중〉이삿날 택일·철학원 작명... 무속적 행위 수두룩 _2025.1.21.](#)

[〈하〉미신적 관습 버리기... 성경읽기 실천부터 _2025.1.22.](#)

칼럼

[\[‘복음과 도시’ 속 예수\] 알고리즘 시대 지혜를 찾아서](#)

국민일보_2025.1.25.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경동교회, 곁에있는교회, 고현교회, 구파발교회, 과천교회, 광주금광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벨엘교회, 광주서남교회, 광주양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남송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도안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산교회, 동촌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목민교회, 모동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당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학교, 수남제일교회, 수원성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수원화산교회, 순복음강남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앙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세종선한목자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광교회, 영락교회, 영주제일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유포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울산다운공동체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산교회, 조암제일교회, 조양중앙교회, 주가행교회, 주님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참사랑교회, 충신교회, 충현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풍성교회, 포도원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밭제일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함께하는교회, 해전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성서유니온,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한국성서유니온, 한국IFCJ 가정의힘, 한목회, (재)한빛누리,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남촌레저개발(주),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주)시스코프, 신대종합모터스,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치움,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동산교회(담임목사 김도훈), 순복음강남교회(담임목사 이장균), 울산다운공동체교회(담임목사 박종국), 장산교회(담임목사 이정우), 영주제일교회(담임목사 금교성), 광주양림교회(담임목사 조성용), 함께하는교회(담임목사 황동한), 목민교회(담임목사 김덕영)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연구소 소식

- 2024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를 모아 엮은, <2024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6>를 출판하였습니다. 책 출판을 위해 재정 후원해 주신 한소망교회(원로목사 류영모, 위임목사 최봉규)에 감사를 드립니다.
- 후원자에게 책을 발송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322-0726)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